

## (주)체리부로, '사료요구율 연동제' 시행 농가의 소득증대 확보를 위한 계기 될 것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현재 육계 계열화 업체의 계약사육농가들에 대한 사육계약방식은 크게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로 나뉘어진다.

절대평가제의 경우 고정 사료요구율을 단가표에 의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료, 병아리 품질이 나쁠수록 회사기준 생산원가는 동일해지는 반면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평가제는 일정한 기간에 속한 모집단의 평균치 기준으로 매입단가를 결정, 같은 집단 내에서 평가 대상자가 위치한 성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열업체는 사료요구율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으며, 제경비를 최대한 낮춰 농가의 소득증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11월 1일 최종 출하정산분부터 사육계약방식을 기존 절대평가제에서 '사료요구율 연동제'로 변경, 농가에 고품질의 사료와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을 만나 이번에 도입한 '사료요구율 연동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최근 체리부로에서 농가사육계약서 관련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지난 20년간 육계의 비약적인 육종발달로 현재 사육 30일령의 경우 사료요구율 1.5대 1.575kg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절

대평가 체제에서는 사료와 병아리 질의 문제로 사료요구율이 1.75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닭가격이 원가 이하의 수준을 맴도는 상황에서 사료값이 인상되면 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료의 질을 낮춰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료요구율 연동제'를 통해 사료, 병아리 등의 최상의 원자재를 공급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사양관리에만 집중함으로써 사양기술 상승, 성적향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일부 사료회사들이 질 낮은 인도산 대두박 사용으로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만 자사의 경우 자체사료 공급을 통해 최상의 원자재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Q** 이번에 바뀐 '사료요구율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료요구율 연동제'는 기존의 고정요구율 단가표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모집단 산정후 상·하위 10% 성적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기준요구율표를 작성하여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모집단 선정기간은 최종 출하일을 포함, 전 14일에서 후 7일 총 20일입니다.

사육비 지급은 최종 출하 후 3일 이내 출하 수당 100원 지급 후 잔액은 30일 결제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적,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료 및 병아리 품질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연중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 원가절감에 직결되기 때문에 원자재 품질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하므로 농가와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밖에 사육수수료 지급 기준이 대폭 수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여러 가지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자면, 일단 농가의 성적 향상에 동기 부여와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지수 보너스를 220부터 10point 당 2원/kg씩 무제한으로 지급기로 했습니다.

갈짚비는 기존 갈짚 처리시 kg당 15원에서 20원으로, 품질개선비는 kg당 5원에서 15원으로, 상차비는 기존 kg당 10원에서 13원으로 각각 인상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육수수료를 변상해야 하는 kg당 70원 미만의 농가에 대해 생활비 조로 출하중량 kg당 70원씩 최소 사육비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시세보너스 지급, 비품 감가, 조기 출하비 지급, 등외품 감량, 사계 공제, 자조금 지원비 등 많은 항목들이 이번 '사료요구율 연동제' 와 함께 수정·보완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사료요구율 연동제' 를 실시했을 때 농가에서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A** 사료, 병아리 등 품질이 좋은 원자재 공급을 통해 농가의 각종 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육일령을 기존 35일에서 32일로 앞당길 수 있어 질병노출 최소화, 노동력 감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여 4계절 내내 안정적인 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사육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A** 사실 '사료요구율 연동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상대평가제에 대한 불신으로 거부감이 컸지만 체리부로의 경우 농가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사료요구율 연동제' 시행을 통해 사료 및 병아리의 품질향상에 대한 확신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이해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농가들의 거부감이 많이 약해졌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시행되는 ‘사료요구율 연동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농가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체리부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A** 지난 9월부터 ‘사료요구율 연동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11월 1일 최종 출하정산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달간 농가협의회측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농가의 의문점 해소 및 의견반영을 통해 세부사항 및 시행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250여개에 달하는 협력농가는 체리부로의 숨은 원동력입니다. 농가가 잘 돼야 회사도 성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것입니다.

**Q**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위에서 밝혔듯이 결국 ‘사료요구율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료 및 병아리 등 원자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에게 체리부로와 거래함에 있어 연중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육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체리피드, 한길바이오 등 사료공장 인수 및 예산 종계장 신축 등으로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9일 한길바이오 공장에서는 무항생제 사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Q**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올해 사료공장이 완공되어 비로소 완벽한 육계 계열화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도계라인의 추가 증설과 원종계장·종계장이 신축·증축 중에 있어 내실을 더욱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작년 2천억의 매출에서 50% 성장한 3천억의 매출 달성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체리부로에서 시행하는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그 동안의 사육계약방식과는 차별화된 농가에게도, 회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 육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